

地域發展 隔差에 대한 分析

白 晳 基*

目 次	차
1. 서론	3. 지역발전과정
2. 지역과 지역문제	가. 공간적 분업
가. 지역성격	나. 공간적 불균형 발전
나. 지역문제	4. 결론

1. 서론

오늘날 도시와 농촌, 지역 간, 국가 간 등의 다양한 지리적 尺度에서 가시화되는 經濟的 不均衡은 그 정도에 차이는 있지만 명백한 현상으로 이러한 空間的 不均衡은 歷史的으로도 끊임없이 계속되어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역사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공간적 불균형을 해소하거나 적어도 경감시키려는 노력이 모든 사회에서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세계대공황 이후 경제의 불균형상태 (disequilibrium)와 需要의 역할을 강조한 케인즈의 이론에 입각한 저개발 지역의 선별적 투자정책¹⁾과 성장거점 理論²⁾에 근거한 경제개발정책들은 경제적 성장을 바탕으로 波及되는 효과를 주변지역에 분배함으로써 공간적 불균형이 감소되리라는 가정 하에 비교적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추진되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낙관적인

* 전북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교육과 교수

- 1) 이 이론은 투자행위가 자본주의 공간경제를 분석하는데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지만, 낙후된 저개발 지역에 집중적 투자를 시도하여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바람이나 지역의 성장, 감소의 문제를 설명하지 못함.
- 2) Stohr and Taylor (eds.) *Development from Above or Below?: The Dialectics of Regional Planning in Developing Countries*.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1981. 이 책에서 성장거점 이론의 이론적 경험적 분석들이 광범위하게 다루어진다.

가정은 최근에 들어 그 기대치를 훨씬 벗어나고 있다는 證據와 함께 批判이 가증되면서, 고용율, 생산력, 경제발전전망 등에서 공간상에 차이로 특징되는 지역문제의 원인이 경제적 차원을 넘어 정치적인 영역의 洞察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졌다. 다양한 척도에서 地域들이 자가지역의 발전을 위한 정치적, 경제적 경쟁에서 지역주의, 심지어 지역이기주의로 표현되는 현상이 사회 전체에 팽배되고 있으며 이는 국가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통합에 위협을 주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지역발전문제를 정치경제적 시각에서 이해하여야 한다는 認識을 더욱 강조한다.

이러한 가운데 地域發展隔差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지리적인 분포에 관심의 초점을 두어 地域特性과 立地要因 간에 관련성과 그 변화의 분석에 역점을 두고 있다. 특정 사회경제적 변수들의 공간적 차이의 성격과 형태를 단순히 기술하는 연구에서부터 좀더 나아가서는 과학적인 방법과 實證主義를 토대로 수량화시킨 공간구조를 설명하고 처방(정책)을 추출하려는 연구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실증적 분석에서 초점이 되는 공간 상에 구체적인 현상들은 지역분석을 시작하는 출발점이 될 수는 있지만 지역변화를 유발하는 본질적인 힘은 아닌 것이다. 여러 다른 현상들 간에 관련성을 경험적으로 조사하여 분석하는 것은 관찰되는 여러 요인들이 어떤 중요한 과정에 의해 형성되는 면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政治經濟的 접근³⁾을 추구하는 學者들에 의해 비판을 받고 있다.

지역문제는 지역격차의 형태의 성격·원인·결과 등에 종합적인 이해를 통하여 접근되어야 하지만 그와 같은 일은 결코 단순하지 않다. 더욱이 資本集中이 심화되고 자본의 이동이 보다 자유롭게 되어 世界資本主義 경제가 밀접한 統合을 가속화하면서 지역발전과 문제를 야기하는 經濟的 過程들은 급격히 변화되고 있다. 新(尖端)技術發達과 조화되어 등장하는 새로운 생산활동이 새로운 지역에서 발달하면서 이들 지역은 성장과 발전을 가속화하고 있으나 반면에 기발달지역들은 급격한 재구조화(restructuring), 심지어는 투자회수(disinvestment)를 겪는 비운을 맞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地域 간에 성장율은 매우 불균등하고 불확실하게 변화하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로서 자본주의 발달의 역동성이 더욱 가시화되면서 공간 발달에 불확실성과 상황적(stochastic)인 성격을 반영한다.

본 연구는 지역발전을 야기하는 원인 즉 지역운세의 변화, 지역의 상이함을 만드는 원인에 관심의 초점을 두고 지역발전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目的에

3) Peet, J.R. and Thrift, N.J. (eds.) *New Models in Geography (Volume One)*, London: Unwin Hyman, 1989.

서 자본주의 하에서 발전이 공간상에 전개되고 있는 과정을 생산활동의 변화를 중심으로 조사하여 설명하는 정치경제적 접근 방법을 선호한다. 지역차이가 생산 확대를 통한 자본축적⁴⁾ 과정에서 형성되고 변화하는 성격에 강조를 두면서 그 과정 속에서 지역발전에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는 요인들이 무엇인가를 고찰하여 지역차이의 분석에 기여하고 지역문제의 실마리를 찾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지역발전과정에 경제적 決定論的 시각은 지양할 것이며 단지 공간이 資本蓄積過程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명백히 밝히고자 한다. 비록 본 연구가 추상적인 개념화에 역점을 두지만 구체적인 분석을 무시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밝히며 오히려 기여되기를 바란다.⁵⁾

이 논문은 4개의 절로 구분될 수 있는데 우선적으로 지역문제와 지역분석의 기틀로서 지역성격이 간단하게 다루어질 것이다. 다음 절에서는 지역이 공간상에서 발전, 변화되는 논리적 과정이 언급될 것이다. 끝으로 결론이 맺어질 것이다.

2. 지역과 지역문제

가. 지역성격

인간사회의 地理的 景觀은 노동과 사회활동이 복합적으로 결합된 領土들의 集合體로서 특징된다.⁶⁾ 이러한 영토적 복합체(territorial complexes)의 생성, 재생

4) 이용가능한 물리적 생산수단의 증가 만이 아니라 자본에 의해 통제되는 전반적인 부의 증가를 의미. Edel, M. "Capitalism, accumulation and the explanation of urban phenomena" 19-44 in Dear, M. & Scott, A. (eds.) *Urbanization and Urban Planning in Capitalist Society*. London: Methuen, 1981.

5) 과학적인 분석에서 필연적인 관계와 우연적인 관계를 구분하여 공간발전에 주요한 결정자로서 필연적인 관계의 추구가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다 (Sayer, 1982). 우연적인 관계는 물론 구체적인 공간현상의 분석에 중요하지만 이것이 이들이 공간발전에 주요한 결정자라는 것은 아닌 것이다. 이론적인 설명에서 구체적인 상황에 작용하는 변화에 강조되는 힘과 구조적인 관계를 개념화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이다.

6) Sack, R.D. *Human Territoriality: its theory and histo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6; Scott A.J. and Storper, M. (eds.) *Production, Work, Territory: the geographical anatomy of industrial*

산, 변형의 역동성을 분석하는 일은 결코 용이하지 않으며 다양한 사회, 경제, 정치 영역에서 이해를 요구할 것이다. Sack⁷⁾은 인간이 공간을 이용하는 성격을 논의하면서 地域의 觀念的이고 실험적(experimental) 차원을 진지하게 결부시켜 인간 사회는 기능적, 인식론적 공간의 구성물의 배열이 끊임없이 역동하는 현상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思考는 지역은 한정된 공간이 아니라 기능적 相互作用의 공간으로 사회적으로 구성되고 재구성되는 구조되는 실체라는 점을 강조한다. 경험적 조사에서 이용되는 지역의 기틀은 영토로서 개인과 사회조직이 일정정도 통제가 분명하게 발휘 가능한 지역으로 구분될 수 있다.⁸⁾ 이러한 관점에서 지역이란 행정구역과 같이 임의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영토의 社會的 분리로서 창출된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

地域이 복잡한 사회적 과정을 통하여 형성, 발전, 변형된다는 영토의 상호작용이라는 인식은 空間이 사회적 구성물(construct)이며 사회적 관계는 공간에서 구현되고 상이함을 만드는 것이 공간이라는 점을 강조한다.⁹⁾ 지역을 구성하는 기능적 상호작용은 다양한 사회적 과정으로 -자본·상품·노동 등의 이동에서 부터 사회적 권력 관계·전통·이데올로기 등에 이르는- 부터 형성될 때 사회화 과정에서 공간은 정치, 사회, 경제적 과정들을 단지 수용하는 것이 아니며, 이들 중요한 과정들은 특정 지역에, 공간관계에 새겨지면서 적극적인 변수가 된다. 예를 들어 자연자원 이용가치에 의해 농업이나 광업이 공간에 배치될 때 사회관계는 공간에 구현되며 自然環境에 따라 인간활동이 용이하게 아니면 제한되는 경우, 또는 버려지는 건조환경이 발전에 장애가 될때 사회관계는 공간에 의해 제한되고 거리의 마찰에 따른 일상생활의 행위가 변형될 때 공간은 증개자로 작용한다.¹⁰⁾

지난 實證主義 分析의 幾何學的 공간은 무질서한 추상(chaotic abstraction)이며 여기에 근거한 경험적인 일반화는 가치있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¹¹⁾ 사회과

capitalism. Boston: Allen and Unwin, 1986. Sack, 1986; Scott and Storper, 1986; Wolch, J. and Dear, M. (eds.) *The Power of Geography: How Territory Shapes Social Life*. Boston: Unwin Hyman, 1989.

7) Sack, 1986, 앞의 책

8) Murphy, A.B. "Regions as Social Constructs: the gap between theory and practice" *Progress in Human Geography*. Vol. 15, No. 1, pp. 23-35, 1991.

9) Massey, D. *Spatial Division of Labor: Social Structures and the Geography of Production*. London: Macmillan, 1984. Wolch and Dear, M. (1989) 앞의 책

10) Wolch and Dear, M. (1989) 앞의 책

11) Sayer, A. "Industry and space: a sympathetic critique of radical

학의 실재론적(realist) 개념화는 합리적 추상화(rational abstraction)에 역점을 두고 현상을 야기하는 통합된 메카니즘을 탐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복잡한 사회과정 속에서 가시화되는 공간변화는 공통적 사회적 과정이 特定場所에서 결합되면서 유발되는 구체적인 결과라는 것이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지역은 資本主義 경제의 사회조직과 제도적 구성의 차이에서 구별되는 현상으로 간주된다.¹²⁾ 경험적 연구를 위한 지역배경의 축적이나 형태의 중요성은 무시될 수는 없지만 이와 관련된 地域의 추상적 개념화를 정의하는 문제는 논쟁에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구되는 과정에 의해 한정되어야 한다.¹³⁾ 여기서의 최근의 논쟁이 뜨거운 지역의 개념적 정의를 자세하게 논의하려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논의는 또 다른 논문의 주제가 될 것이다.¹⁴⁾

地域이 사회적 구성물이며 생산과 재생산의 사회적 관계의 구조라는 점이 인식 되면 지역을 유사한 축적의 역사를 갖는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틀이 유사한 場所(place)들의 집합으로 간주할 수 있다. 즉 유사한 투자여건을 조성하고 투자를 장 애하는 요인들이 복잡하게 연관된 역사적 산물이라고 본다. 이러한 사고에서 지역은 한정된 공간이라기 보다는 기능적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 공간으로 반드시 인접할 필요는 없다. 더욱이 지역은 행동하거나 관계하는 물체가 아니며 단순히 특정한 생산력과 생산관계에 의해 특징되는 장소이다. 따라서 한 지역이 다른 지역을 이용할 수는 없으며 단지 사람이나 사람들의 집단이 이용하는 것이다. 지역의 성격은 전체 사회형태에 의해 결정되고 그 변하는 성격은 전체 사회형태의 발전에 반영된다.¹⁵⁾ 地域 경계는 항상 변화하며 통신과 교통에 발달로 相對的 距離의 變化로 끊임없이 변형되며 지역경계는 패쇄적이 될 수 없으며 따라서 지역 발달과 변화의 역동성은 강조되어야 한다.

research"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3:3-29, 1985.

12) Webber, M. "Agglomeration and the regional question" *Antipode* 14:1-11, 1982.

13) 범위를 한정하는 물리적 또는 인간적 경계로 제한된다면 여러 지리적 척도에서 분석될 필요가 있다. 공간에서 인간활동의 작용은 여러 공간적 척도로 복잡화된다. 국가적 도시구조는 세계적 자본과 노동관계의 상호작용의 결과이나 이웃구조는 공동체 수준에서 아주 다르게 작용하는 자본과 노동관계로 한정될 수 있는 것이다 (Wolch and Dear, 1989).

14) 자본주의 사회관계는 항상 지리적인 성격을 갖으나 거기에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국가구조, 동일인종, 이웃구조 등에서 처럼 정확한 공간형태가 사회적 힘에 관련되는 정확한 방법은 분명치 않다. Murphy, 1991, 위의 글.

15) Webber, 1982, 위의 글.

나. 지역문제

地域이 生産의 사회적 관계를 바탕으로 구분되면 지역문제는 자본주의 하의 특정 사회구성체 안에서 사회적 생산관계들의 공간적 불균등발전 과정에 초점을 맞춘다. 空間的 불균등발전 문제를 과거 신고전주의 경제학에서 주장하는 임금이나 실업율, 소득수준의 격차 등의 공간적 불균형(inequality)의 결과로서 보는 것은 부적합하다. 오히려 외부소유 정도, 統制效果, 고용형태 차이 등의 새로운 지표가 위의 지표보다는 적절하다. 이러한 지표들이 빈번히 지역격차의 설명에 이용되어 지지만 이들은 단지 생산형태 이전지급의 정도, 자본과 노동의 공간적 움직임과 같은 성격 반영에 불과한 것으로 이윤추구와 경쟁력에 따른 생산의 결과이며 이들을 위한 필연적인 조건은 아니다. 즉 경제활동을 위한 투자를 유인하는 정도에 지역적 불균형은 그 결과인 사회복지 지표와는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저개발과 개발, 中心과 周邊과 같은 척도는 세계적인 척도에서는 적합할지는 모르나 자본주의 生産樣式에 의해 전적으로 지배되는 하나의 사회구성체 안에서는 지역관계를 결정할 수는 없다. 이들 발전이론의 핵심은 개발지역과 저개발지역이 상호연관을 갖고 이용하는 메카니즘이다. 특히 개발지역이 저개발지역을 이용하는 착취의 개념은 생산성의 증가를 유발하는 기술혁신의 역할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러한 생산성 증가와 革新이 주변지역을 피하는 정확한 이유는 저개발이 아니라 많은 다른 중요한 요인과 歷史的 環境에 의할 것이다. 地域에 따른 다른 부문 간에 불균등 교환은 기술 임금 숙련도에 지역적 차에 의하나 그들 차이의 기원에 설명이 없다. 노동착취율은 영토적 차원을 갖지만 이러한 형태가 착취율의 결과이지 원인은 아닌 것이다. 한지역이 다른 지역을 支配한다고 하나 지배 관계는 사람과 집단 사이에 존재하는 것으로 이용하는 것은 사람이지만 지역은 아닌 것이다. 中

- 16) 자본주의 국가에서 파시즘, 개인민주주의, 군사독재와 사회민주주의 등은 가능한 지배형태이다. 어느 시기에 이러한 다른 사회구성체제는 노동자의 생활여건과 노동계급의 미래이득에 가능성 및 축적자체의 세부사항에 상이한 차이를 유발한다. Edel, 1981, 앞의 글.
- 17) Westway, J. "The spatial hierarchy of business organizations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British urban system" *Regional Studies*, 8:145-55, 1974.
- 18) Massey, 1984, 앞의 책.
- 19) Ferrao, J. & Jensen-Butler, C. "The centre-periphery model and industrial development in Portugal"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2(4):375-402, 1984.

속지역의 발전 경로가 산업지역의 필요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나 양 지역의 발전은 축적과정의 상호 연결의 필요에 의한다. 더욱이 중심 주변 구조를 불변한다고 간주하나 최근의 탈산업화에 따른 선진국의 기발달지역의 쇠퇴, 첨단산업발달에 따른 신흥발전지역 등 지역발전구조의 변화를 설명하는데 충분치 못하다. 더욱이 이들 척도로 구분되는 발전의 정도는 의미있는 개념이 아니며 지역발전 형태는 不變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것이다.²⁰⁾

여기서 지역적 不均衡이 역사적 현상임을 인식하는 것은 중요하다. 투자결정에 생산여건(인구·자원·상대적 거리등)의 지리적 분포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 分布의 지리적 차이는 생산과정의 요구조건이 변화되면서 형성되는 성격이라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資本蓄積을 증가시키기 위한 생산조건(상품, 생산과정, 조직)에 변화가 실제 입지요인 수요를 결정하면서 결과적으로 입지요인의 분포에 따른 공급차이를 이용하는 기회를 열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공간적 불균형 분포가 입지요인으로서 투자결정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것이라기 보다는 생산조건 변화가 우선하여 공간적 불균형을 유발한다는 것이다.²¹⁾ 물론 투자결정에 입지요인의 공간적 분포에 차이가 무관하다는 것은 아니다. 강조되어야 할 점은 공간적 不均衡 분포의 기원은 과거의 생산조건 변화에 있으며 그 결과로 생성된 공간적 구조가 투자결정에 이용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생산여건의 지리적 차이는 역사적으로 생성된 현상으로서 특정지역의 자연적 속성과는 거의 무관하다는 점이다.²²⁾

최근에 이러한 생산조건(과정)들의 변화에 노동의 역할은 특히 중요하여 생산활동의 공간적 입지를 다양하게 分布시킨다. 예를 들어 上品 및 생산공정의 기술적 발달에 따른 勞動費用, 質, 需要 변화가 생산활동의 국제적 이동을 강조하는 상품주기론과 노동의 국제적 분업 모델에 잘 설명되고 있다. 아뭏든 기술적 변화와 노동수요 관계 그에 따른 생산활동의 공간적 배분 사이에는 결정된 일방적인 관계를 규명하기는 어렵다. 상품생산의 표준화와 대량화에 따른 값싼 노동력 추구가 빈번히 나타나는 현상임은 틀림없지만 기술발달에 따라 산업발전이 이러한 軌를 따르

20) Webber, 1982, 앞의 글.

21) Webber, 1982, 앞의 글.

22) Massey, D. "In what sense a regional problem?" *Regional Studies*, 13(2), 233-43, 1979.

23) Harvey, D. *The Limits to Capital*.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2.

리라는 보장은 없다. 예를 들어 자동화가 노동비용을 충분히 대체한다면 노동비용과 통제에 중요성은 희석될 수 있는 것이다.²⁴⁾ 과학적 경영과 기술적 변화가 노동 과정을 조절하고 생산의 이윤율을 증가시키기 위해 발전되는 면도 무시할 수 없다.²⁵⁾ 技術發達에 따른 노동과정 변화가 지역의 불균등 발전에 중요한 역할이 된다는 점은 중요하다.

지역발전 과정에 다른 經濟部門 (branch)에서의 자본 축적율의 상이함이 공간적 不均衡을 야기하는 점도 중요하다.²⁶⁾ 이윤추구가 모든 부문에 동일한 目的이지만 다른 부문에 따라 공간적 불균형을 이용하고 조화시키는 방법은 상이하다. 자본축적 과정에서 한 지역이 높은 기술 인력을 필요로 하는 산업에 특화될 수 있으나 다른 지역은 낮은 기술 인력에 의존하는 자본집약 산업이 특화될 수 있는 것으로 지역이란 불균등적으로 발전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資本集約的 部門의 하나로 석유화학산업은 상대적으로 노동비용이 전체생산비에 적은 부분을 차지하지만 가전제품, 자동차산업과 같이 표준화된 組立式 生産方式을 채택하는 부문은 비교적 낮은 숙련노동력을 이용할 것으로 이들 부문 간에 투자의 형태는 상이할 것이다. 이러한 상이함은 공간적 불균형의 다른 형태를 생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즉 다른 생산력과 생산관계로 구성되는 부문이 상이한 지역문제를 유발하는 점을 일깨워준다.

이러한 지역발전의 역사성과 불확실성에서 자본축적율의 변화, 즉 노동을 움직이고 지시하는 힘이 공간에서 불균등하게 발전하고 이에 따른 부의 분배가 불균등하게 전개되는 면은 중요하다. 地域 간의 交易, 불균등한 交換에 이윤의 확대, 이윤이 가장 높은지역으로 잉여자본을 전환시키려는 자본가의 유혹은 장기적으로는 봉쇄할 수 없다. 반면에 노동자는 물질적 생활수준이 높은 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유혹을 뿌리치기가 어렵다. 과잉축적의 경향과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 및 탈가치화 (devaluation)의 위협은 자본가를 地域을 넘어 활동을 확대하도록 만든다. 즉 자본주의 공간 경계의 발달은 대립되고 모순된 경향에 의해 수반된다. 공간장벽과

24) Walker, R. "Technological Determination and Determinism: Industrial Growth and Location" 226-264, in Castells, M. (ed.) *High Technology, Space, and Society*. (1985) Beverly Hills: Sage.

25) Urry, 1986, "Capitalist Production, Scientific Management and the Service Class," pp. 43-66 in Scott A.J. and M. Storper (eds.) *Production, Work, Territory: the geographical anatomy of industrial capitalism*. Boston: Allen and Unwin.

26) Smith, N. *Uneven Development*. Oxford: Basil Blackwell, 1984, p.99.

지역구분은 분쇄되어야 하지만 다른 편에서는 새로운 지리적 차이가 새로운 공간 장벽으로 야기되는 것이다. 이것이 필연적인 자본주의 불균형 발전의 개념이 기틀이 된다.

지역발전 형태의 표출은 단지 資本移動에 의한 것만이 아니라 자본이동과 물리적 고착성 간에 복잡하고 矛盾的인 관계에 의한다. 자본축적과 순환을 유발하는 복잡하고 모순적인 관계는 사회적 경제적 발전의 특정한 공간형태로 표출되며, 반대로 이러한 유연적인 자본주의 지리가 자본주의 성장과 위기에 중심적인 역동성에 기여한다고 하였다. Harvey²⁷⁾는 주장하기를 위기의 시기에 값싼 생산지로 생산 자본의 이동은 그 위기의 해소책이 될 수 있으나 거기에는 자본의 본연적 모순에 따른 과거의 공간 형태로 구속된 곤경을 벗어날 수 없는 공간적 고착성(fix)의 추구가 있다고 한다. 즉 자본축적은 특정 공간형태의 발전을 일으키고 촉진시키지만, 훗날 다른 지리적 요구와 충격을 갖는 팽창단계를 장애하는 형태가 된다고 주장한다. Smith (1984)는 공간상의 不均衡 발전은 환경에 우연적인 변화가 아니라 자연의 생산에 매우 체계적인 과정이라고 하였다. 공간의 생산은 생산여건과 수준에서 지리적 균등화와 차별화를 향한 대립된 두개의 추세가 끊임없이 펼쳐짐으로써 이루어진다고 한다. 공간적 고착성(fix)은 결코 성취될 수 없으며 단지 자본의 시이소를 통해서 뚜렷한 地理的 不均衡 패턴을 야기한다고 주장한다.

3. 지역발전과정

가. 공간적 분업

地域의 상이함을 유발하는 필요조건으로서 자본주의 생산의 사회적 관계를 공간상에 구체화시키는 分業의 발달로 여겨진다. 분업은 노동생산성 증가에 기여한다고 아담 스미스가 주창한 이래 자본주의 발달에 주요한 결정자인 것이다.²⁸⁾ 자본주

27) Harvey, D. *The Limits to Capital*.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2.

28) Friedman, A. *Industry and Labour*. London: Macmillan, 1977. Scott, A.J. "Industrial organization and the logic of intra-metropolitan location I: theoretical considerations" *Economic Geography*. 59:233-50, 1983.

의 사회에서 분업의 형태는 기술·산업·국가·기업 등에 따라서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하나의 商品生産에 여러 생산 작업 형태를 분리 시키는 기술적 분업²⁹과 상이한 상품들을 독립된 별개의 기업에서 생산하는 사회적 분업으로 구별한다.³⁰ 일반적으로 이 두가지 형태는 조직성격과 관련되어 전자는 기업 내에 발달되며 후자는 시장관계를 통해 발달된다. 분업발달의 메카니즘의 자세한 분석은 많은 곳에서 다루어지고 있으며 여기서는 간략히 요약한다.

분업발달에 따라 생산과정이 분리되고 조직되는 형태와 노동이 작업과 결부되는 관계를 노동과정이라고 한다. 분업에 따른 노동과정의 변화는 다른 형태의 노동을 필요로 한다. 노동과정의 변화를 볼 때 기술적 분업은 기계화와 자동화를 통한 資本深化(capital deepening)가 가속화되면서 노동력의 비숙련화(deskilling) 傾向을 강조한다. 이 과정에서 생산비용은 절감하고 노동통제는 증가되는 경향이 있다.³¹ 그러나 비숙련화 경향을 생산활동의 발전에 보편화 추세로 일반화하는 데는 주의하여야 한다. 기술적 변화는 생산과정에 특정한 것으로 새로운 부문의 발달과 분업 안에 새로운 분열로서 나타나는 재숙련화(reskilling)도 있는 것이다.³² 운송 및 교환 기술의 발달과 병행하여 이러한 기술적 분업 발달은 기능에 따른 생산단위들이 각기 적합한 입지선택을 하는 공간적 분업의 가능성을 증대시킨다.³³ 생산에 전문화된 숙련노동력의 필요가 중요하다면 그 생산활동의 立地選擇은 분명히 제한된다. 즉 노동시장이 발달한 대도시 地域이 유리할 것이나 반면에 풍부한 비숙련, 미숙련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생산활동은 공간적 제한을 덜 받고 주변지역으로 分散化가 가능할 것이다.

노동과정의 논리에 의한 공간적 분업은 물론 생산의 거래 구조에 따른 사회적 분업의 중요성도 강조된다.³⁴ 내부화된 계층구조로 연계되는 기술적 분업과 시장을

29) 일련의 생산단계가 기능에 따라 직접생산의 전의 구상단계(생산계획, 디자인)와 직접생산단계로 구분된다. 또는 이와 병행하여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30) Massey, 1984, 앞의 책, p.185; Scott, 1983, 앞의 글.

31) Clark, G. "The employment relation and the spatial division of labor"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71:412-24, 1981.
Walker, R. and Storper, M. "Capital and industrial location" *Progress in Human Geography*. vol. 5, pp. 473-509.

32) Urry, 1986, 앞의 글. Scott, 1986, 앞의 글.

33) Massey 1984, 앞의 책; Walker and Storper, 1981, 앞의 글.

34) Scott, A.J.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a geographical agenda"

통해 거래되는 사회적 분업은 市場과 階層構造 개념을 이용하여 거래의 성격에 따라 구분한다. 더욱이 이러한 거래구조에 따라 구분되는 생산조직 구조에 차이는 수직적 통합과 수직적 분열로 구분되며 내부화된 생산거래에 따른 수직적 통합은 공간적으로 다양한 입지를 확대하기가 용이하며, 반면에 수직적 분열의 조건에서 연계비용을 유발하는 공간적 거리는 생산자들을 서로 간에 인접한 地域으로 집중시키는 추세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분공장발달이 지역경계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지역기업 보다 부정적이라는 증거는 이러한 내부화된 수직적 관계에 기인된다고 여겨진다.³⁵⁾

分業에 따른 작업활동에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지휘구조로서 權威關係는 중요하다. 이 관계는 생산은 물론 비생산활동 조직에서도 상당히 보편화되고 있어 대기업과 정부구조에서 쉽게 발견된다. 모든 조직들은 權力의 수직적, 수평적 배열로 특징되는 권위의 계층적 구조의 어떤 형태를 택하는 것이 보통이다. 생산조직들이 이 권위관계를 통하여 공간상에서 통제되고 권력이 유지되는 것이다.

分業과 權威關係의 메카니즘을 통해 연결되는 사회구조가 발달하면서 분업은 생산요구 조건의 불균등한 공간적 분포에 따라 공간적 분업을 만든다. 어떤 地域은 노동집약 활동이 활발하고 다른 지역은 자본집약 활동이 특화될 때 생산력과 생산관계는 불균등하게 발전하게 되며 지역차이는 병행된다. 이것은 근로자와 공장 지역들이 특정한 일에 특정상품 생산에 특화되는 것을 의미하며, 분업과 다른 생산부문 간에 특화에 따른 교역과 교환을 필요로 한다. 결과적으로 지역이 상이함은 자본주의 생산관계 때문이 아니라 분업에 의해 유발된다.

나. 공간적 불균등 발전

지역발전의 중심적 면은 지역성장과 감소의 논리적 관계와 자본축적의 요구조건 사이에 관심을 갖는다. 축적과정에서 내재되는 모순 때문에 성장과 감소의 주기적인 순환 단계를 경험으로써 각 순환 단계는 생산의 뚜렷한 지리를 설정한다고 주장된다. 따라서 지역발전 논리는 성장과 함께 이윤의 저하와 병행되는 자본 이용에 장애에 관심이 되어야 한다.

지역발전이 生産의 社會的 關係의 재생산 -주기적 중단과 함께- 되는 과정으로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76(1):25-37, 1986.
35) Scott, 1986, 앞의 글.

정의될 때 이러한 관계의 유지를 위한 사회적 통합과 응결을 확보하는 再生産過程, 즉 資本蓄積過程이 원활히 되어야한다. 자본가들의 개인적 이익 사이에 또 조직화된 자본계층들의 集團的 이익 사이에 치열한 競爭的 압박과 그리고 노동계층과의 대립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성장을 위한 이윤의 재투자는 본연적인 특성이다.³⁶⁾ 이러한 논리는 사회적 관계의 변화과정을 통해 축적체제(regime of accumulation)의 역사적 변화를 주장하는 불란서 레규라시옹 학파³⁷⁾에서 잘 설명된다. 이들에 의하면 하나의 축적체제는 생산과 소비 사이에 그리고 노동의 생산과 재생산 간에 비교적 안정된 관계가 유지되는 단계라고 한다. 성장을 위한 재투자에서 일부는 생산증대를 위한 연구 및 개발 비용에 이용되고 다른 일부는 생산과 소비의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설정하는 데 이용된다. 전자는 경쟁에서 존립하고 노동계급의 압박으로 부터 지배 통제를 확보하기 위해서 기술 혁신을 통해 성장을 추진하는 데 이용되며 반면에 후자의 비용은 단체고집권, 임금계약, 실업보험, 신용시설 등에 이용되는 노동계급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사용되는 부분이다. 물론 이들의 목적이 뚜렷이 구별되는 것은 아니고 相互聯關된 機能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본축적을 위해 계속되는 재생산과정은 내재된 모순에서 일련의 위기를 접한다. 발전논리에 의해 총체적 생산규모가 확대되면 생산수단과 노동력도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循環資本이 팽창되지만 固定資產의 팽창하는 성격이 특히 중요하다. 고정자본은 여러생산기간에 사용되는 상품으로 공장, 기계, 교통수단, 은행, 상업시설 등이며 최근에는 소비에 도움을 주는 병원, 학교, 백화점등이 포함되며 이들은 내구재로서 규모도 크고 가격을 메기기 어렵다. 이러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와 함께 자본집중은 생산수단에 비교해 노동 수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사회의 생산력과 소비력 간에 차이를 유발하여 위기의 반응에서 재구조화는 矛盾的인 效果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³⁸⁾

이러한 축적형태는 몇몇 地域에서 산업생산을 집중시키는 集積의 경향을 기초로 하여 발달된다. 집적과정에서 지역이 갖게되는 생산력과 생산관계는 그 지역 생산이 증가되는 시기의 발전논리에 따라 결정되고 그후 감소의 성격으로 설명된다.

36) Edel, M. 1981, 앞의 글.

37) Aglietta, M. *A Theory of Capitalist Regulation*. London: New Left Books, 1979. Lipietz, A. "New tendencies in the 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r: regimes of accumulation and modes of regulation" 16-39 in Scott A.J. and Storper, M. (eds.) *Production, Work, Territory: the geographical anatomy of industrial capitalism*. Boston: Allen and Unwin, 1986.

38) Storper, 1984, 앞의 책.

생산의 집적은 생산을 社會化하는 必要에 의해서 야기된다. 생산은 주로 사기업에 의해 수행되지만 사회적 과정이다. 왜냐하면 생산의 필요가 사회적으로 결정되며 또한 대부분의 생산수단이 사회적으로 설정된다. 즉 자본은 고정자본재(하부구조의 일종)를 공동으로 나누며 생산의 필요한 관계를 설정하는데 협력한다. 반면에 노동자는 소비자급에 일부를 공동으로 나누며 그들의 재생산은 부분적으로 집합적이다. 資本主義 생산에 요구되는 물질적 도움이나 사회적 관계를 제공하는 것은 費用이 드는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것들이 생산에 기술적 자연적으로 부합되는 몇몇의 地域에 한정될 때 비용은 최소한이 되는 것이다. 集積은 자본가 간에 노동자 간에 협력을 이용하고 발전시키는 문제이다.

集積傾向은 물리적 사회적 한계에 접한다는 것은 명백하다. 혼잡비용, 하부구조 이용에 경직성, 지가상승과 그에 따른 임대료 증가, 공간부족 등등이 집적경제를 반감하며, 빈민계급의 집중은 계급의식을 싹트게 하며 사회적 불안의 요소가 될 수 있다. 노동과정 변화에 따른 비숙련화는 자본이 노동단결력이 높은 지역을 피하여 값싼 노동력이 풍부한 地域으로 이동가능성을 높여 노동에 대한 統制를 증대시킨다. 더욱이 운송 교환의 발달은 특정 장소의 접근성의 중요성을 상대적 감소시키기 때문에 생산활동은 과거보다 공급자나 시장에 덜 결속되게 되며 집적경제의 산업연관 관계는 감소되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이 投資環境이 보다 좋은 地域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또한 신용화폐체계의 발달에 따른 자본 순환의 급속한 확대도 분산의 이해를 준다.³⁹⁾

그러나 분산의 강력한 한계 또한 무시할 수 없다. 토지에 부속된 거대자본, 자본과 노동 재생산에 중요 역할이 되는 사회하부구조, 구체적 노동과정에 묶여있는 자본 이동에 제한 등등이 자본을 장소에 제한한다. 비싼 물질적 및 사회적 하부구조의 제공은 집중을 통하여 규모 경제에 매우 유리하다. 分散은 기존지역에 이득이 계속 증가하지만 새로운 地域에 고정자본 투자를 위한 자본이 부족할 때 위축되며 운송수단이 부족할 때는 어려울 것이다. 運送費가 감소하고 운송시설이 일반화할 때 생산은 넓은 地域으로 이동이 가능한 것이다.

생산의 사회화는 초기에는 축적을 한정된 지역에 제한할 것이며 이들 지역은 성장단계에서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공간적 부동성으로 고착되며 축적의 후기에는 축적체계의 모순으로 성장은 둔화되고 위기의 시기에는 정체되거나 상대적인 감소를 하게된다. 이러한 發展段階에서 생산시설, 고정자본, 소비지원 계급구조 등의 지

39) Harvey, 1982, 앞의 책.

리는 뚜렷하게 설정된다. 새로운 지역에 발달되는 生産活動은 새로운 기술 및 사회적관계가 이용하여 타지역보다 급속히 성장한다. 성장초기에는 자본축적율이 노동력 증가율 보다 크기때문에 자본은 노동에 비해 약화된 힘을 가지며 이러한 현상은 공간적 집중이 큰 지역에서 강력할 것이다. 따라서 노동은 여러부분에서 힘을 보일 수 있다. 임금의 상승을 피할 수 있으며, 복지정책을 향상시키고 노동조직을 활성화하여 근로여건 改善에 여타 地域보다 유리할 것이다. 따라서 축적의 장애는 이들 집적지역에 실질사회임금의 증가인 것이다.

競爭力 유지를 위해 資本은 잉여가치율을 증가시키는 새로운 수단을 찾아야 한다. 자본에 대한 노동의 상대적 힘의 증가는 자본축적을 위해서 실질임금의 저하나 노동시간의 증대를 통해서 보다는 생산성의 증가를 통해서 가능하게 된다. 더욱이 강력한 노동 단결력을 상쇄하기 위해서 기계화를 축적을 추진하나 이는 蓄積에 증가를 相殺하는 結果를 초래하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 과정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며 자본에 이득과 함께 축적에 모순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地域은 축적된 생산력과 설정된 사회적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공유되는 자본은 長期的으로 소멸된다는 점은 중요하다. 이들을 재생하기 위해서는 공동이용자들의 대다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외부시설과 사회적관계의 재생에 무질서적인 성격과 다른 것의 妨害 없이 어떤시설을 대체하는 어려움은 이들이 버려지거나 다른 지역에서 설정된 외부경제나 생산관계에 의해 추월되어 진다. 이러한 버려짐은 축적체제가 급격히 변화하는 轉換的 段階에서 가장 많이 표출되어 진다.

과거 기발달지역에서 축적이 중지될 때 고정자본, 소비지원, 노동력의 공급이 사회적 필요 수준을 초과하기 때문에 그들의 價値는 떨어지게 된다. 더욱이 축적은 生産利潤을 반감시키는 버려진 고정자본이 없는 다른 지역에서 발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들 지역에서 공유된 생산력은 새로운 技術로서 세울 것이며 노동단결력은 약화되어 있을 것이다. 따라서 과거의 蓄積論理에 의해 근거한 地理는 축적을 구속하는 장애가 된다. 즉 과거의 지리적 사실들이 생산의 새로운 지리를 형성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다. 새로운 蓄積段階는 새로운 지리를 형성하는 새로운 논리로 이루어지며 새로운 생산지리는 과거지리와는 무관하게 발전되는 것이다. 과거의 저개발지역이 상대적으로 투자에 좀더 매력적이 되면서 기발전지역은 상대적 저발전을 겪고 저발전지역은 발전을 경험한다. 이러한 가능성은 經濟景觀을 재구조화하는 투자입지가 끊임없이 시이소를 한다고 여겨진다.*

40) Smith, N. 1984, 위의 책

결국 地域發展과 築業의 지속적 이득을 가능하게 하는 메카니즘은 존재하지 않는다. 가장 풍부하고 강력한 지역경제도 붕괴될 수 있는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구성체에서 지역의 發展歷史는 성장과 감소의 추세로 축약될 수 있다. 경제발전 어떤 단계에서 한 지역은 호의적인 자본축적의 장소로서 발전한다. 반면에 다른지역은 상대적 감소의 과정으로 표현되는 또 다른 추세가 있다. 축적은 뚜렷한 단계로 진행되는 과정이지만 지속되리라는 보장도 없으며 역전되지도 않는다. 각 단계는 특별한 지리로 특징지어져 어떤 지역은 투자에 유리하나 다른 지역은 무시된다. 이러한 지리는 새로운 축적의 전단계에서 결정된 지역특성에 의해 조건화되며 상품의 새로운 관계에서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새로운 것으로 조건된다. 공간경제의 발달을 계층적 발달로서가 아니라 체계가 없는 불균등한 모자이크 구조로 기술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⁴¹⁾

4. 결론

본 연구는 資本主義의 力動性에서 지리적 불균등발전과 이 과정에서 공간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지역발전문제를 조망하였다. 지역적 차이는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과정들이 역사적으로 다양한 공간에서 구현되면서 유발되고 변화한다는 점을 인식할 때, 지역발전의 적절한 설명은 자본축적의 논리에 근거한 空間的 不均等 發展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地域은 지역 내·외적인 요인들이 복잡하게 작용된 歷史的 산물로서 이들 지역은 投資의 새로운 章을 위한 條件을 창출하지만 이들 조건들은 언젠가는 계속적인 성장에 장애가 되는 것이다. 또한 資本蓄積은 시간적, 공간적으로 동일한 형태로 결코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생산요구 조건의 지리적 차이는 공간에서 명백히 나타나지만 이러한 요구조건은 과거의 투자에 의해 형성된 결과일 것이다. 새로운 투자가 이러한 과거 유산인 지리적 차이와 중첩되면서 상이한 지역에 상이한 효과를 주게 될 것이다.⁴²⁾ 지리적 불균등 발전의 분석은 따라서 그 사회구성체의 보다 넓은 특성을 배경으로한 역사적 기틀에 근거하여야 한다. 자본축적과정의 기틀 안에서 역사적 背景과 함께 노동

41) Storper and Walker, 1983, 앞의 글.

42) Massey, 1984, 앞의 책.

과정과 생산의 공간 조직의 분석은 지역발전을 설명하는 새로운 미래를 제공할 것이다.

空間的 불균등발전이 문제라면 政策도 그 과정 속에 부분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정책이 불균등 발전과정에서 어떻게 관련되는가는 중요하다. 정책이 發展의 흐름에 외부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인가 아니면 버려지고 낡은 물리적 사회적 구조를 수선하고 작용시키는 데 계속적으로 내적인 보충을 하는 것인가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政策의 成功은 지역에 支配되는 공간적인 힘을 이해하고 해당 場所의 뚜렷한 歷史地理를 이해하는 데 의존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参考文献〉

- Aglietta, M. *A Theory of Capitalist Regulation*. London: New Left Books, 1979.
- Clark, G. "The employment relation and the spatial division of labor"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71:412-24, 1981.
- Dicken, P. *Global Shift: Industrial Change in a Turbulent World*. London: Harper & Row, 1986.
- Edel, M. "Capitalism, accumulation and the explanation of urban phenomena" 19-44 in Dear, M. & Scott, A. (eds.) *Urbanization and Urban Planning in Capitalist Society*. London: Methuen, 1981.
- Ferrao, J. and Jensen-Butler, C. "The centre-periphery model and industrial development in Portugal"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2(4):375-402, 1984.
- Friedman, A. *Industry and Labour*. London: Macmillan, 1977.
- Harvey, D. "The urban process under capitalism: a framework for analysis," 91-121, in Dear, M.J. and Scott, A.J. (eds.) *Urbanization and Urban Planning in Capitalist Society*. New York: Methuen, 1981.
- Harvey, D. *The Limits to Capital*.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2.
- Lipietz, A. "New tendencies in the 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r: regimes of accumulation and modes of regulation" 16-39 in Scott A.J. and Storper, M. (eds.) *Production, Work, Territory: the geographical anatomy of industrial capitalism*. Boston: Allen and Unwin, 1986.
- Massey, D. "In what sense a regional problem?" *Regional Studies*. 13(2), 233-43, 1979.
- Massey, D. *Spatial Division of Labor: Social Structures and the Geography of Production*. London: Macmillan, 1984.
- Murphy, A.B. "Regions as Social Constructs: the gap between theory and practice" *Progress in Human Geography*. 15(1):23-35, 1991.
- Sack, R.D. *Human Territoriality: its theory and history*.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6.
- Sayer, A. "Industry and space: a sympathetic critique of radical research"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3:3-29, 1985.
- Scott A.J. and Storper, M. (eds.) *Production, Work, Territory: the geographical anatomy of industrial capitalism*. Boston: Allen and Unwin, 1986.
- Scott, A.J. "Industrial organization and the logic of intra-metropolitan location I: theoretical considerations" *Economic Geography*. 59:233-50, 1983.
- Scott, A.J.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a geographical agenda"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76(1):25-37, 1986.
- Smith, N. *Uneven Development*. Oxford: Basil Blackwell, 1984.
- Stohr and Taylor (eds.) *Development from Above or Below?: The Dialectics of Regional Planning in Developing Countries*.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1981.
- Storper, M. and Walker, R. "The theory of labor and the theory of loc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vol. 7, pp. 1-43, 1983.
- Storper, M. and Walker, R. *The Capitalist Imperative: Territory, Technology and Industrial Growth*. Oxford: Basil Blackwell, 1989.
- Taylor M.J. and Thrift N.J. *The Geography of Multinationals*. London: Croom Helm, 1982.
- Urry, J. "Capitalist Production, Scientific Management and the Service Class," pp. 43-66 in Scott A.J. and Storper, M. (eds.) *Production, Work, Territory: the geographical anatomy of industrial capitalism*. Boston: Allen and Unwin, 1986.
- Walker, R. "Technological Determination and Determinism: Industrial Growth and Location" 226-264, in Castells, M. (ed.) *High Technology, Space, and Society*. (1985) Beverly Hills: Sage.
- Walker, R. and Storper, M. "Capital and industrial location" *Progress in Human Geography*. vol. 5, pp. 473-509.

- Webber, M. "Agglomeration and the regional question" *Antipode* 14:1-11, 1982.
- Webber, M. "Regional production and the production of regions: the case of Steeltown" 197-224, in Scott A.J. and Storper, M. (eds.) *Production, Work, Territory: the geographical anatomy of industrial capitalism*. Boston: Allen and Unwin, 1986.
- Westway, J. "The spatial hierarchy of business organizations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British urban system" *Regional Studies*. 8:145-55, 1974.
- Wolch, J. and Dear, M. (eds.) *The Power of Geography: How Territory Shapes Social Life*. Boston: Unwin Hyman, 1989.